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

Perception of Internet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on Reconciliation of Divorced Couple

임춘희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Choon-Hee Lim(chlim@kunsan.ac.kr)

요약

본 연구는 이혼한 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이혼 후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보거나 혹은 실행하는 재결합에 대하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 중인 다양한 일곱 가지 사례들을 택하여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재결합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지지하였다. 즉, 재결합에 대한 준비나 전배우자의 이혼 후 이성관계의 포용, 이혼이유의 성찰과 전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려는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그리고 혼인 신고 없이 재결합을 해보는 것, 자녀를 위해서는 재혼보다 재결합이 나은 것이라는 생각, 전배우자와의 이혼 후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후 재결합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반대하는 이유도 있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점, 전배우자의 무반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태도,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의 외도 재발의 우려, 재결합에 대한 전배우자의 진정성 결여, 성급한 재결합 결정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 이전의 갈등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재결합으로 인한 재이혼의 문제, 전배우자의 단점 불변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직 재결합을 하지 않고 재결합을 고민 중인 사례들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의 찬반 의견과 조언이 다양했던 반면, 자녀를 위해 이미 재결합을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혼 증가로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상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추후로 이혼 후 재결합의 성패요인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를 확장시켜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이혼 후 재결합 | 인터넷 사이버공동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on reconciliation of divorced couple and find reasons for pros and cons concerning reconciliation after divorc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arching for website or Internet cafe related to 'reconciliation after divorce' on Internet. The contents of 7 cases for asking for advice on reuniting and opinions of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on them were analyzed.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approval of divorced couple's reuniting for following reasons: 'strong motive for reunion', 'sexual relation with ex-partner', 'parental responsibility', 'regarding reconciliation as a better choice than remarriage', 'regarding as a good choice for child' etc. But cyber community members were opposed to divorced couple's reuniting for following reasons: 'doubt about real intention to reuniting', 'no self-reflection on previous marriage and ex-spouse', 'concern for recurrence of former marital conflict', 'reuniting only for child not for couple', 'no prior settlement of former marital conflict', 'no forgiveness and tolerance for ex-spouse', 'no reflection and change', 'no effort on ex-spouse's side' etc. Though these results were restrictive,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surrounding reconciliation after divorce through asking and giving advices by anonymous members on cyberspace. These findings implied that we should take more interest in reconciliation as an realistic alternative marriage pattern after divorce and consider what is important to successful reuniting after divorce.

■ keyword : | Internet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 Reconciliation of Divorced Couple | Perception of Cyber Community Participants on Reconciliation after Divorce |

I. 서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10] 2011년 한 해 동안 32만 9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하였다. 이는 1980년 40만3천여 쌍이 결혼하고 2만3천여 쌍이 이혼한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난 30여년 사이에 이혼이 급증하였으며 이혼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이혼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혼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혼으로 인해 개인적, 가족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적응의 문제를 겪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 정책적 복지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변 가족에게는 물론 사회적,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혼 후 가족의 사회적 규범은 모호하며 이혼자들의 이혼 후 인생경로와 가족의 역동은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하나의 종결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이혼 후의 생활은 독신이나 한부모가족 혹은 재혼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여 다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은 통계나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다.

흔히 생각하듯이 이혼으로 가족생활도 동시에 깨끗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이혼 후에도 부부는 일정기간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이혼한 부부라도 이혼 후 오랫동안 정서적, 정신적으로 얽매이고 연결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이혼한 부부가 자녀로 인해 가족으로 연결되는 '이혼 후 가족'(postdivorce family)[26]은 외부인들이 알지 못하는 다소 비밀스러운 형태로 내적으로는 가족과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한 부부는 이혼 후 계속 독신을 유지하거나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택 속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한 부부들은 이혼 후 접촉을 통하여 한번쯤은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 후 성공적인 재결합이 갖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

은 무엇보다 부부와 자녀가 받았던 심리적 상처나 후유증을 회복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결합의 부정적인 결과는 재이혼의 가능성으로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 또 다시 가족해체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 후 재결합의 과정은 사실상 대단히 복잡하고 이혼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공식적인 통계 조사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혼 후 과정을 재혼과 결부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 속에서 이혼 후 재결합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혼 후 대안의 하나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혼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재결합에 대한 욕구와 의사가 있더라도 이혼과정에서 노출된 갈등과정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재결합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의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다. 이혼당사자들 곁에서 이혼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아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혼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 또 주위에서 재결합을 적극 강요하거나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재결합의사가 있는 이혼한 개인은 누군가로부터의 조언을 필요로 하며 조언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성정현과 홍석준[6]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의 증가와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이혼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혼 경험을 상호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상의 이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이혼한 사람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재결합에 대한 조언과 정보적 도움을 청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이혼증가라는 가족의 변화와 인터넷문화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확산으로 개인적, 사회적 노출을 꺼리는 이혼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고 이슈화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을 이혼한 개인들의 이

혼 후 가능한 대안적 선택의 하나로 간주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이혼 후 부부 재결합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의 사례와 이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특히 이혼 후 재결합의 개별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결혼생활 회복을 위한 기회 하나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유도하고 재결합으로 인한 장, 단점에 대한 인식들을 파악하여 추후 실제 이혼 후 재결합 관련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이혼 후 재결합

2011년 통계청 조사[11]에 의하면,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6%를 차지하며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3.2년이다.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5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들의 사례연구[3]에서 볼 때 이혼당사자들은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으며 이혼자들은 이혼 후 재결합의 과정을 겪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고 나서도 재결합에 대한 고민 혹은 헤어지기 전 배우자에 대한 상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중심적인 가족관계의 특성을 보이는 한국인의 경우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부모역할로 인해 전배우자와 접촉하게 되며 이혼 후 한번쯤은 재결합을 고려할 수 있다. Hetherington과 Kelly[21]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들은 전배우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는 경향이 많으며 남성들은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장현정[9]에 의하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맡지 않은 비양육 친부모는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결혼생활을 해도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는 금전적인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보살핌을 유지

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3]에 따르면 사실혼 가운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10.2%에 달한다. 이로 보아 사실혼 상태의 재결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같은 상담소의 통계[12]를 볼 때 사실혼해소 상담을 신청한 재혼 가정의 비율이 45%로 나타났으며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로 보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지는 재혼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인 통계이지만 이혼 후 사람들은 법적인 재혼 보다는 동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 후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하는 성격을 갖는 동거의 비율도 적으나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혼 후 가족은 법적인 결혼이나 가족이 아닌 실제적인 결혼과 가족생활을 선택하기 쉬우며 공식적인 실태조사로는 파악되지 않는 다소 복잡한 경로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나 학문적 연구들은 재결합이나 동거보다는 재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서 이혼 후 대안으로서 재혼에 비해 성공적인 재결합이 덜 주목받지만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해볼 때 성공적인 이혼 후 재결합을 통해 이혼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원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족탄력성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재결합은 이혼이나 재혼 보다는 사회적 낙인이 약하며 특히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지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혼 후 재결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경우 전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부부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가족의 건강성이 더 견고해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혼자들이 재결합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이혼 당사자들이 전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정리나 수용이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결혼생활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부 갈등이 재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결합을 위해서는 이혼당사자 자신의 노력과 각오가 크게 필요하다는 부담감과 이혼한 배우자와

의 재결합에 대한 주위의 냉소적인 반응과 재결합보다는 재혼을 부추기거나 선호하는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주변환경(결혼정보업체나, 드라마, 이혼전문변호사 등) 등이 재결합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재결합을 주저하거나 혹은 극히 소수나마 재결합을 했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 재결합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관심부족은 이혼율이 높은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Binstock과 Thornton[22]은 결혼이나 동거부부의 결혼해소에 대한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도 결혼해소 후의 상황을 별거, 이혼 혹은 재혼 등 이분법적으로 간주하고 이혼 후 많은 행로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Hetherington과 Kelly[21]는 이혼자들의 이혼 후 적응 유형을 향상된 유형, 유능한 고독자, 만족형, 추구형, 방탕형, 패배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만족형(Good Enough)이라고 하였는데 만족형의 이혼자들은 이혼을 과속방지턱 같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은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생존자로 자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혼 후의 적응을 다룬 많은 연구는 이혼 부부 중 재결합한 경우가 있다 해도 재결합여부는 거의 논의로 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Kitson[23]과 Wineberg와 McCathy[25]는 재결합과 별거는 많은 결혼한 부부에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시사 하였는데 그들은 결혼생활의 약 10%가 적어도 한번은 별거했거나 재결합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런데 별거한 적이 있는 여성의 재결합 발생률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tson과 Langlie[24] 그리고 Wineberg와 McCathy[25]에 의하면 이혼으로 끝난 결혼 가운데 30%에서 44%의 부부가 적어도 한번은 이혼 전에 별거와 재결합을 했었다고 한다. 더욱이 수차례의 재결합은 흔하며 재결합을 시도했던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재결합을 시도했다고 한다. Wineberg[26]는 재결합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하며 성공적인 재결합을 인터뷰 당시의 부부가 재결합하여 1년이 지난 것으로 정의하면서 재결합을 시도한 사람들의 1/3 정도만

이 성공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은 외국의 경우이지만 재결합과 별거는 결혼생활 전체를 통해 볼 때 드문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혼한 부부는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혼 후에 그들은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의 문제 등과 마주치게 된다. 이혼 과정이 여성에게 ‘분리의 혼돈에서 삶을 재구축해가는 과정’[10]인 것처럼 이혼한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재결합과 관련하여 외국의 혼인문화 연구(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15])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는 이혼이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쌍방에게 애정 관계를 회복하고 의견차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한 횟수는 두 차례에 한정하고 있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을 재고하여 원래의 결혼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즉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국내의 한 연구[6]에 의하면 이혼 후에 전남편과 교류가 있는 경우는 자녀와 관련한 교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한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 양육비 및 경제적인 문제 상의, 자녀양육 방식,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 한 쪽의 새 파트너로 인한 부모역할 등에 관련하여 전혼배우자와 교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 어느 한 쪽의 재결합 요구에 의한 교류도 있었으며 조사한 이혼 여성의 약 7%정도가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에게 또는 자신에게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온전한 가족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혼부모는 재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데 이는 자녀를 고려해서 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2][6]. 따라서 이혼부부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재결합 가능성은 자녀가 없는 이혼부부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이혼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충실한 협력자가 될 때 그들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되고 정당화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Madden-Derdich 등[20]은 이혼 후 전혼부부가 감정적

으로 갈등관계가 심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협력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이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여성은 전배우자인 전남편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요구하며 이혼했다라도 전 아내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Ahrons[19]는 전혼의 한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또 다른 전혼배우자가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족을 이중 핵가족(binuclear family)이라고 정의하면서 이혼부부가 재혼을 한 상태라 할지라도 자녀양육에 관련되어 서로 접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혼부부의 접촉이 자녀와 같은 매개자로 인하여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부부는 이혼 후에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은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갖게 된다. 이혼을 했어도 독신이나 재혼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에 대해 저울질해 볼 수 있다. 바로 이 때 재결합을 고려하는 개인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재결합을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며 그러한 조언들이 신뢰되고 진정성이 있다면 자신의 재결합 결정에 그러한 조언들을 참고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재결합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조언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력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도 자신의 재결합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이슈화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사이버공간은 유사한 관심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7].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 기능과 효용이 증대된 사이버공간은 쌍방 간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반응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6]. 또한 사이버공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 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좀 더 자율적이고 평등한 새로운 장(field)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수평성과 개방성, 능동성, 익명성, 통제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좀 더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익명성으로 인해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참여에 대한 어떠한 강요나 강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 입장에서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6].

이러한 사이버공간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유사한 관심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참여자들의 집단을 사이버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김유정과 조유선[3]이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가령, Fernback과 Thompson은 사이버공동체를 가상 공간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매개로 영역이 형성되고, 그 영역 속에서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Jones는 컴퓨터가 매개된 의사소통(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최순화 등은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유사한 관심사와 가치관, 생활양식을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으로 사이버공동체를 정의하였다. 또한 윤병섭과 이홍재[7]는 사이버공동체를 전통적 공동체 개념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컴퓨터를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단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정의를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버공동체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유사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며 문자에 의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참여자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온라인커뮤니티와도 동일한 의미로 보고자 한다.

宮田加久子[16]에 의하면 사이버공동체와 동일한 의미로 보는 온라인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필명과 같은 닉네임을 이용해 발신행동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축적이 가능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신규참가자나 일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이탈했던 참가자도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 재참여가 용이하다. 셋째, 익명성이 높은 발신행동과 발신자의 사회적 근거가 부족해 특정한 사람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평등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온라인커뮤니티 중에서 온라인 자기부조그룹(SHG: Self-Help Group)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당사자들 혹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알게 되고 서포트를 주고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서포트를 주고받고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같은 고민이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라는 입장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기문제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조언과 지지를 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은 사이버공동체 활동을 통한 새로운 임파워먼트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사이버공동체가 갖는 여러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재결합 혹은 재혼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일들에 대해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별이나 나이, 계층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개인적 경험을 주고받으며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사이버공간 상에서 의미 있는 타자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된다.

가령,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합, 경쟁 그리고 투쟁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1], 부부의 재결합과 같은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혼이나 재결합 같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과 유

사한 경험을 가진 타인에게 감정이입적으로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순수한 이타적인 동기 때문이거나 이미 경험자로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가치감 혹은 자기효용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宮田加久子[16]에 의하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자기부조집단(SHG)에 참여해 조언을 받거나 격려를 받고 여러 정보를 얻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미 문제를 극복한 참가자를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참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고 실천을 향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오늘날 사이버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혼이나 부부 재결합문제와 같은 사적인 영역이 사회적 영역으로 부각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정현과 홍석준[7]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과 관련된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이혼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자신의 이혼결정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 혹은 이혼 이후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즉 사이버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연구자들은 현재 인터넷 상의 이혼자들은 다양한 사이버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이혼자들은 경험 공유를 통해 개인의 실존적 경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별을 배제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낙인에 대한 종래의 규정을 거부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동원하기 위한 공동체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부부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5], 국제적인 삶의 질 연구에서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비율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 연결망 부문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여 한국 사회 인간관계의 '풍요 속 빈곤'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의 놀라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페이스북'은 늘지만 대면접촉인 '페이스 투 페이스'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기는 문제에는 있으나 사이버공간의 활성화는 친밀한 사적 관계가 오히려 줄어들지는 한국 사회에서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으로 대면적인 관계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사적인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자유롭게 정보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갖는 기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에서 거론하기 힘든 이혼 후 재결합 같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오히려 솔직하고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혼부부의 재결합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재결합문제를 고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결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에서 ‘부부 재결합’이라는 주제로 검색하여 웹사이트 주소를 알아낸 후 선정된 웹사이트 중 회원이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익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방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이나 기타 참여자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전자언어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연구자가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구성원들 간에 이미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자료만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비매개적 방법(unobstruc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온라인상의 자료들은 가능한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후 의미가 전달되도록 윤문작업을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은 언제나 재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전자언어 텍스트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혼 후 재결합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조언을 구하는 사례는 재결합의 이유와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언하며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재결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수집은 2011년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http://cafe.daum.net>, <http://bbs.moneta.co.kr>, <http://www.82cook.com>의 세 사이트에서 수집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례채택의 근거로는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된 고민의 내용이 재결합이유와 상황에서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고 직, 간접적으로 재결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상의 참여자들의 글 내용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선행연구로는 이혼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전자언어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공동체 구성원의 특징과 관심사, 관계형성의 방법 등에 관해 내용을 분석한 성정현과 홍석준의 연구[7]가 있다. 본 연구도 그와 유사한 방식을 따랐으나 이혼 후 재결합 문제를 고민하는 이혼자들과 그에 반응하는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의 인식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이혼자들의 고민과 재결합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이버공동체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탐색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다해도 이혼 후 일정기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이유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의 특유의 정(情)의 정서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이고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졌다고 해도 과거 배우자에 대해 미운 정과 고운 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가감정이 있으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한 이혼자들은 누구나 한번쯤 재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쉽게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이혼자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동

체의 성원들도 이러한 이혼자들에게 현실세계에서 보다 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조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네트워크로서의 사이버공간이 갖는 강점이자 사이버공간에서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인터넷 조사는 한계가 있는데 가령, 참여자들이 연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자료의 질이 떨어진다가나 컴퓨터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가나 일반적인 조사시 요구되는 조사와 관련된 윤리적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고민하는 이혼자들의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갈등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정이입적으로 진정성 있는 의견과 조언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통계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추후 온라인이 아닌 실제 이혼 후 재결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위해 의미 있는 탐색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혼 후 재결합을 할 의사가 있는 다섯 사례와 그리고 재결합의사가 없으나 전배우자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의 한 사례 그리고 이미 재결합한 한 사례를 포함한 총 일곱 사례에 대해 사이버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재결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찬성하는 이유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재결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앞서 언급한 세 곳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혼 후 재결합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올린 사례들의 내용과 이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내용을 의미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재결합을 고민하는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

한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의 의견들은 사례별로 재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즉 재결합에 대한 찬성 의견과 부정적인 인식 즉 재결합에 대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재결합 사례내용과 이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의 의견 내용은 재결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네 가지 사례의 경우만 예시하고 나머지는 요약하여 [표 1]로 제시하였다. 사례의 특성은 사례 1의 이혼 남성을 제외하고는 여섯 사례 모두 이혼여성이었으며 재결합과 관련된 갈등문제와 상황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1.1 부부 중 한 사람만 재결합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재결합 의사가 있으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경우는 다섯 사례였으며 <사례 1>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의 사례였다. 재결합을 원하며 조언을 구하는 <사례 1>의 이혼남성은 과거의 결혼생활에 대한 반성, 전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재결합에 대한 바람을 호소하면서 재결합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 전부인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었다.

"16개월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이제 21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이혼 후 초기엔 관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헤어진 애기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애기엄마가 보고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견디어보고자 헤어진 후 1년간은 거의 술로 살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애기엄마에게 잘못했던 기억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지난달에 애기엄마와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끔 아주 가끔 전화통화는 했지만....제가 성급한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전 헤어진 후에도 줄곧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조심스럽게 재결합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애기엄마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아무 느낌 없이 생각없이 만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직은 이르다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 마무리도 해야 하고...조금만 더 이대로 살자며 그리 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그런 말 들으면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만나 이후로 2번의 전화통화 이후론 제 전화를 받지 않고...문자를 보내도 이틀이나 사흘 후에나 답장이 오는 걸로 봐선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네요. 어쩐지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님 이 모든 게 저의 집착일 뿐인지. 요즘 하루하루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라도 해준다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http://cafe.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PA&qid=0QJLS&q=16%B0%B3%BF%F9+%C0%FC+%C0%CC%8%A5%C7%D1+%BB%E7%B6%F7%C0%D4%B4%CF%B4%D9&srchid=NKSOQJLS)(사례1)

전혼부부 중 한 쪽이 재결합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례 1>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버상의 참여자들은 장래 재결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결합을 위한 준비로 전부인의 과거를 묻지 말고 수용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이의 엄마는 남과 결합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착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제한되었던 자유도 만끽하고 싶을 테고요. 그런 점은 아이의 엄마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속이 상하시더라도 술을 마시지 마시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시고 능력도 키우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면 아이의 엄마는 다시 결합하자고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재결합한 후에는 아이의 엄마의 과거에 관해서는 절대로 묻지 마세요.

사이버상의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전남편으로부터 재결합을 제의받았던 경험자임을 밝히면서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의지가 약해지므로 재결합을 단념할 것을 조언하며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남과 똑같은 처지인지라... 몇 자 적습니다. 저도 4살된 아들과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 아빠가 다시 같이 재결합하자고 하지만 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재결합할 맘이 사라지더군요. 님의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잘 생각하시고 힘 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님 곁에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사세요. 저 또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피붙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혼한다고해서... 모든 게 불행하진 않아요....

이처럼 이혼부부 중 한 사람만 재결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경우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재결합을 위한 준비로 이혼 후 전부인의 생활을 문제삼지 않고 재결합 여

부에 상관없이 무언가 자신만의 능력을 키우며 자녀에 초점을 둘 것을 조언하였다.

1.2 재결합을 원하지는 않으나 이혼한 전배우자와 성적 관계로 인해 재결합을 고민하는 경우

이혼자들은 이혼 후 전배우자와의 만남과정에서 성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사례 2>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로 원래 재결합을 원치 않았으나 성적인 관계로 인해 재결합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혼 후 아이와 저와 전남편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아이가 아프기도 했고...돈이 필요했고...전 남편과는 재결합은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러나 애인이나 재혼상대나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고 그러다...전남편과 돌이 밤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한번이 두 번이 되고...두 번이.....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가고...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멀리 합니다만...전 배우자와의 관계...남성 분,여성 분의 생각은 ...

(<http://cafe.daum.net/79ya52la/NJwR/432?docid=19BFpI/NJwR/432/2100211194056&q=%C0%CC%8%A5%C8%4+%C0%E7%B0%E1%C7%D5>)

<사례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결합을 지지하는 참여자들의 조언이 많았다.

나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마음이 안 가면 몸도 안가던데... 그 정도 관계면 다시 재결합 하세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윗분 말씀대로 몸이 갈 정도라면 재결합이 좋을 거 같네요... 아이델구 재혼 쉬운 일 아니죠.. 모두에게...

저는 남자이지만 아이들 때문에 전처를 만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만 만나면 되지 전처를 왜 만납니까? 이혼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이 때문에 만나야할 이유가 없어요... 전 전처가 재결합을 원한다고 주변사람들을 시켜 종용해오지만 이혼한 이상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게 재결합을 권하지 않지요. 아이들 때문에 전배우자를 만나 같이 잠자리할 정도이면 재결합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이렇게 <사례 2>에 대해 재결합을 지지하는 입장의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재결합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사이버공동체 성원들 중에는 한 번 이혼한 후에는 재결합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성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혼 후 전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이혼하려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이버성원들은 자신의 이혼 경험에 비추어서 <사례 2>의 경우는 전배우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원래 이혼 당시 이혼 의지나 이혼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왜 이혼했나 싶네요.. 정떨어져 이혼 후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던데 잠자리라니... 정이 그래도 남았군요.. 우린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 놀랍기만 하네요.

서로 마음이 동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얼굴도 보지 않지만요, 잠자리..? 그거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일이구요. 한번 끝난 거면 끝난 거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잠자리를 하나까..? 차라리 이혼을 하시지를 말던가 이혼 정말 장난으로 하신 분 같습니다.

전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보기 위해 만나면.. 아 이만 데리구 얼른 돌아옵니다. 얼굴만 봐도 흑어나 웃기까지 스쳐도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위에 사연을 쓰신 분은.. 아마 저만큼 끔찍해서 이혼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과 달리 전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례 2>의 재결합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성원들도 있었다.

이혼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정말 힘들게 한 것이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면 용서라는 것도 하게 되고 이해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옛정도 그리워지고 막상 애들 데리고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별 남자, 별 여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친부모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전에 익숙했던 관계라 가능할 것 같네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라면 마음이 가지 않는데 몸이 갈 리가 없겠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외로운 상태라 이해는 갑니다.

<사례 2>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성원들의 의식 속에는 자녀를 위해 재혼보다는 재결합이 낫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원들은 이혼여성은 부부관계의 상실과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 기회 부족으로 인해 대안적으로 전 남편과 성적 관계를 재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사례 2>의 재결합을 이해하고 있었다.

1.3 이혼을 후회하고 자녀 걱정에서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후회하고 자녀 걱정에서 재결합을 원하는 이혼 여성 사례는 자신의 이혼을 순순간의 오해와 자존심 싸움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비양육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재결합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하였다.

“오늘이 딱 일 년 쯤 되는 날이네요. 아이 둘 키우면서 남편과 행복했던 날도 많았는데 한 순간 오해와 싸움으로 서로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혼이라는 순간의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밝히고...날씨도 추운데.....웃은 따듯하게 입고 다니는지..소식도 들을 수 없고..

남편과 진지하게 애들 생각해서 다시 재결합의 얘기를 꺼내 보았는데..당시엔 그딴 말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더니..어느 날 문자가 왔더라구요. 한번 보자고..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그럼 만나서 잘잘못 따지지 말고 진지하게 얘기할 꺼면 만나보자고 했더니 또 넌 아직도 죄를 모른다는 등...그만하자고 말을 끊네요..조금은 마음도 있는 거 같은데..서로 맘의 응어리가 안 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말도 좋게 안 나오고..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여? 가정상담소 이런 곳도 제가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까요?

애들이 너무 밝히고 ..미안해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이것도 ..잠시뿐일까요? 이혼하고 산다는 거...정말 남들은 요즘 별거 아니다~위로하지만..너무 힘들고 외롭고..지치고...가슴이 아프네요..“

(<http://cafe.daum.net/79ya521a/NJwR/432?docid=19BFp1NJwR/432,20100211194056&q=%00%CC%08%A5%08%04+%00%E7%B0%E1%07%D5>)(사례4)

이러한 사례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로 대별되었다. 이 사례에 대해 재결합을 지지하는 성원들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든지 한 쪽에서 자존심을 버리거나 양보를 하고 재결합하여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남편분께 진심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남편분이 죄를 모른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남편분도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한번 저주는 것도 이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저주는 것도 이기는 방법 ...용서를 하실 거라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맞아요...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부부사이에... 애들도 중요하지만 아직 남편분에게 맘이 남아있다면 한번 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강 굴하게 잘못한번 인정해줘요.. 속은 아닐지라도... 애들 생각하고 다시 남편과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면...

아이를 봐서 재결합하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님이 무조건 참고 고개 숙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자존심 세워서 다시 싸우고 하지 말고 .남편을 무조건 믿고 맞추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재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반대하는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에 대해 좀더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다. 즉,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똑같은 과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자녀 걱정으로 재결합을 고려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 주변에도 이혼했다가 애들 때문에 다시 재결합하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해 있는 동안 서로 이혼한 이유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진 응어리 이런 거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애들 봐서 강 살자 했다가 재결합 못했어요, 재결합하는 문제로 다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여자 쪽에선 아무리 그래도 예전 일은 다 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나중에 또 말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었고 남자 쪽에선 뭐 좋은 소리라고 자꾸 그 얘기를 들먹거리느냐는 식이었고, 지금은 서로 다른 여자/남자 만나 잘 살고 있네요,, 너무 급하게 애들 봐서 당장 해야지 하지마시고 남편분하고 자주 시간 갖고 예전 얘기도 꺼내서 서로 응어리도 좀 풀고 그런 뒤에 재결합을 하시던, 아님 아이들만이라도 만나고 살게 해달라고 하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첨엔 재결합할 것처럼 자주 보고 만나고하다가 나중에 후식 안 좋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 받잖아요~힘내시고 꼭 잘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재결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나아가 더 강하게 아이 때문에 재결합하는 것에 대해 적

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를 때문이라도 꼭 절대 재결합 하지 마세요.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이들 데려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남자 안 만나고, 가정적이고 착한 남자 만나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정서적 안정입니다. 똑같은 상황 반복될 여지가 있다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생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1.4 자녀 때문에 재결합을 한 경우

이혼을 하고 재결합여부로 고민하는 사례들과 달리 자녀문제로 재결합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례 7>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재결합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재결합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6년 전 남편과 결혼, 4년 전 남편과 별거,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이 때문이었지요. 저는 초인적으로 일이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나마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그만 암에 걸리셔서 아이를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4개월 후...이건 정말 사는 것이 비정상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작해봄이 어떨겠냐고요. 그래서.. 전 서울에서의 화려한(?) 직장생활을 접고 일단 당분간은 군인인 남편을 따라 철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함께요.

두렵습니다. 아직.. 남편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전업주부의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 투성이랍니다. 철원에서 몇 개월 살면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다음 해에 대학원을 우선 다니겠다고 생각을 모은 상태긴 하지만 아이 빼 놓고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이 행복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의 쓸쓸한 재미 많이 알려 주십시오.

(<http://cafe.daum.net/ibe/Lr1/93635?docid=NoWlLr1|93635|20030916161010&q=%C0%CC%C8%A5%C8%C4+%C0%E7%B0%E1%C7%D5>)(사례 7)

<사례 7>과 같이 결혼하고 이혼한 지 오래 되지 않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예상치 않은 생활의 변화와 육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재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결합을 한 <사례 7>은 아직 재결합한 기간이 오래지 않아서 미래의 불투명한 결혼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불안감은 이혼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정리나 남편에 대한 수용의 준비 없이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재결합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이미 결정한 재결합 상황을 불안해하는 <사례 7>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이버 참여자들은 재결합결정을 지지하며 재결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셔야지요. 조심스럽게 다시는 정말 어려워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말아야겠지요?

아름 후에 내리신 결정인 만큼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네요...아마도 더 나이 들어서 그나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으로 가지셨음 하구요...글구 살다봄 누구나 한번쯤은 갖는 이혼생각이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다보니까 그때 안 헤어진 게 잘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아이와 함께 행복하시길~

아이를 생활의 중심에 둔 재결합이라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은 하셨으니 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앞질러 걱정 하지 마세요.

추카할 일이네요. 네에~ 자식이 우선이죠. 부디 잘 맞추어 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 그전보단 나은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대부분의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은 <사례 7>이 재결합을 고민하던 단계를 지나 이미 현실적으로 재결합을 결정하고 실행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자녀를 고려한 힘든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면서서 재결합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극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와 시사점

1. 결론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하는 다양한 사례들의 경우에 대해 게시글에 나타난 당사자와 전배우자의 재결합의사나 상황, 현

재 관계의 성격에 따라 재결합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나름대로 온라인상의 자조그룹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먼저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인터넷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 중인 사례들에 대해 사례별로 재결합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이혼 후 재결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결합을 지지하는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았다. 즉, 재결합에 대한 준비, 전배우자의 이혼 후 이성관계에 대한 포용, 이혼 이유의 성찰과 전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려는 노력을 전제로 하였을 때 재결합하는 것이 좋다거나 주위에서 성공적인 재결합을 목격하였거나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을 해보는 것, 자녀를 위해서는 재혼보다 재결합이 낫다는 생각, 이혼 후 전배우자와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 재결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은 재결합을 고민하는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이혼 후 재결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점, 전배우자의 무반성적이고 믿을 수 없는 태도,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의 외도 재발의 우려, 재결합에 대한 전배우자의 진정성 결여, 성급한 재결합 결정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 이전의 갈등 해결 없는 성급한 재결합으로 인한 재이혼의 문제, 전배우자의 단점 불변에 대한 생각 등을 들었다.

이외에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은 재결합을 하지 않았고 재결합의 의사도 없지만 자녀를 위해 전배우자와 가족같이 지내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의 경우([표 1]에서 사례 6)에 대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성원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이미 재결합 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좋은 선택으로서 재결합 결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1.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

사례	성별	사례의 특징	재결합에 대한 사이버 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재결합 찬성 이유)	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재결합 반대 이유)	사례출처
1	이혼 남성	부부 중 본인만이 재결합의사가 있는 경우	-재결합을 위해 준비가 필요함 -이혼 후 있었던 전부인의 사생활에 대해 수용할 것	시간이 갈수록 재결합 의지가 약해질 것으로 재결합결정에 대해 부정적	http://cafe.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PA&qid=0CjLS&q=16%B0%B3%BF%F9+%C0%FC+%C0%CC%C8%A5%C7%D1+%BB%E7%B6%F7%0D4%B4%CF%B4%D9&srchid=NKS0CjLS
2	이혼 여성	재결합을 원하는 않으나 이혼 후 전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	-전배우자와의 이혼 후 성적인 관계는 정서적 결함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로 재결합 지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보다는 재결합이 좋음	-전배우자를 용서하기 어려움	http://cafe.daum.net/79ya521a/NjwR/432?docid=19BFpI/NjwR/432120100211194056&q=%C0%CC%C8%A5%C8%C4+%C0%E7%B0%E1%C7%D5
3	이혼 여성	이성관계가 복잡한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법적인 신고 없이 동거형태의 재결합 권유	-전배우자의 무반성과 부책임한 태도로 재결합의 어려움 예상 -전배우자의 외도문제 재발에 대한 우려 -전배우자의 경제적으로 신뢰롭지 못한 행동을 재결합의 걸림돌로 간주	http://bbs.moneta.co.kr/nbbs/bbs.moneta.qry.screen?p_bbs_id=N09999&p_message_id=11436408&top=1&sub=1&depth=0
4	이혼 여성	이혼을 후회하고 자녀 걱정으로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 재결합 지지	-성급한 재결합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 -과거 전혼갈등의 재연에 대한 우려	http://cafe.daum.net/79ya521a/NjwR/432?docid=19BFpI/NjwR/4321,20100211194056&q=%C0%CC%C8%A5%C8%C4+%C0%E7%B0%E1%C7%D5
5	이혼 여성	부부 양쪽이 재결합을 원하지만 과거 결혼 갈등의 재발이 두려워 고민하는 경우	-이혼원인에 대한 성찰과 노력 전제로 재결합 지지 -주변의 성공적인 재결합 사례목격 경험으로 재결합 권유 -재결합의 필수조건으로 정신적 성숙이 전제 시 재결합 권유 -재결합한 기경험자 입장에서 부부 신뢰와 의지의 중요성 -재결합을 위해 사전 타협과 포기 필요 -재혼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간주, 재결합 지지	-재이혼에 대한 우려 -전혼에서의 갈등 해결 없는 성급한 재결합 -전배우자의 단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결합해도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간주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284352
6	이혼 여성	전배우자와 잘 지내지면 재결합을 원치 않는 경우	재결합을 하지 않고 전배우자와 가족 같이 지내길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조연자의 상황에 비추어 부러움의 감정으로 지지함.		http://cafe.daum.net/ub2040/9GZR/1919?docid=18YgBI9GZR/1919/2008018184718&q=%C0%CC%C8%A5%C8%C4+%C0%E7%B0%E1%C7%D5
7	이혼 후 재결합 여성	자녀 때문에 재결합한 경우	-신중한 결정으로 재결합 결정을 존중함 -이미 재결합한 상황이므로 지지함 -자녀를 위한 좋은 선택으로 간주함		http://cafe.daum.net/ibe/Lr1/93635?docid=NoWlLr1193635120030916161010&q=%C0%CC%C8%A5%C8%C4+%C0%E7%B0%E1%C7%D5

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혼 후 재결합은 흔히 자녀를 둔 이혼부부에게 있어 한번쯤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이혼 후의 대안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재결합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녀를 위한 재결합을 하기 보다는 먼저 이혼의 원인이 된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전배우자 상호간에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고 전혼생활과 이혼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며 전배우자를 수용하고 용서하며, 재결합에 대한 부부 당사자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등 부부로서 재결합을 위한 준비와 신중한 숙고와 재결합 결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결합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우려하는 재결합의 후유증인 재이혼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혼 후 재결합은 갈등이 있었던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혼보다 더 어렵고 도전적이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사이버공동체성원들이 재결합에 반대했던 이유처럼 이혼부부가 과거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또 서로가 과거의 결혼생활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 전배우자에 대한 용서심 등 감정적인 치유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재결합을 한다면 재결합 이후의 결혼생활에 또 다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많은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혼부부 중 한 쪽 또는 양 쪽 모두가 재결합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과거 갈등요인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또는 일순간의 감정에 의해 성급하게 재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결혼생활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한 개인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막연하게 다시는 과거의 결혼생활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또는 전혼배우자의 역할이 필요해서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재결합의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부부가 과거 갈등이 미해결된 상태로

과거 결혼생활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과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혹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재결합은 부부관계 회복의 진정성을 결여한 도구적 재결합으로 오래지 않아 전혼생활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재이혼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가 일차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재결합을 한다고 하였을 때는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을 점검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미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결정하고 실제로 감행한 사례에 대해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대부분 지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재결합을 고민하는 사례에서와는 달리 어려운 결정을 한 성원의 선택에 대해 지지해주며 장차 재결합 생활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고 격려해주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공동체가 온라인상에서 서포트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기구제그룹(Self-Help Group) 혹은 자조집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했지만 여전히 재결합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입장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사람들의 존재는 재결합 이후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같은 고민을 가진 사이버공동체의 성원들에게도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은 재결합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임명의 지지집단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사이버공동체 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지지를 보낸 결과는 이혼 후 재결합이 갖는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비록 재결합의 일차적인 이유로 자녀를 언급한다고 해도 이혼 후 재결합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결합은 재혼과는 달리 이전에 풀지 못했던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재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 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 또한 전배우자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지며,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면서 가족이 더욱 결

속되고 건강성과 행복감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혼 후 재결합은 재혼보다도 부부간에 노력이 더 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선택인 만큼 재결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성취할 수 있으며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도 행복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런데 재결합 여부를 떠나 이혼 후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이혼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치되는 전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Afifi와 Hamrick[28]가 제안했듯이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의 그들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혼부부의 부부만의 사적인 문제 영역은 그 자체가 감정적인 격앙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재결합은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복잡한 결정일 수 있지만 이혼 후 자녀를 위해서는 재결합 여부와는 별개로 이혼부부들이 공동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합리적인 관계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宮田加久子[16]가 언급한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서포트 제공자의 신뢰성, 전문성, 서포트를 구하는 사람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수 없다. 서포트 제공자는 서포트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언의 요구를 오해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결정이 어렵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적절한 서포트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맺는 강한 유대관계와 달리 인터넷상에서의 유대관계는 약하며 특정 영역에 한정된 사회적 서포트만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상의 자기구제그룹과 같은 사이버공동체도 문자커뮤니케이션이므로 때로는 쓴 글이 왜곡되거나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바로 본 연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본 연구가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없는 것이 단점이다(성정현, 홍

석준[6]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대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비언어적 메시지의 이해나 상대방의 설득 그리고 충분한 정서적인 교류의 경험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동안 이혼 후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 부모 가정이나 재혼에 맞춰져 왔으며, 사람들은 이혼하는 순간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혼가족이라고 해도 자녀가 있는 전혼부부의 관계는 이혼과 함께 바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한부모 가정으로 혹은 독신으로 혹은 재혼으로 가게 되는 과정 중간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혼부부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며 재결합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로 동거를 통한 재결합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히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가족은 가족생활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도 포착되지도 않아서 감춰진(hidden)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Giddens[17]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내부준거적 체계이며, 점차 사람들은 성적·감정적으로 평등한 순수한 관계의 이상과 출산의 필요에서 해방된 탈중심화된 섹슈얼리티인 조형적 섹슈얼리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친밀성 영역에서의 변화는 이혼과 이혼 후의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이혼 후 상황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개인적 선택의 폭이 증가하면서 재결합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확한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논의도 활발하지 않으나 이혼부부에게는 이혼 후의 하나의 대안이 되는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고민하는 개인들과 실제로 이혼 후 재결합하는 부부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결합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추후로 실제로 재결합한 부부들을 심층 면접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록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공간상에서 이혼 후 재결합 조건을 둘러싼 의견 교환에서 나타난 인식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가족복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부부간의 애정을 증시하는 정서적 결혼을 강조하는 현대 부부의 결혼생활의 경로가 단순히 평생 결혼이나 이혼 혹은 사별, 그리고 재혼이라는 외형상 단선적인 범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 사이에 별거나 재결합과 같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그리고 앞으로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고민하거나 재결합 후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혼자나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재결합한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하여 복지관련 기관에서 특히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이버 상담과 대면 상담과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을 이혼 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보고 이혼 후 재결합 과정과 재결합의 성패요인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강상현,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제14권, 제1호, pp.7-40, 2000.

[2] 금명자, 유정이, 이호준, 이지은, 김수리, *이혼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3] 김미숙, *우리시대 이혼이야기*, 양서원, 2005.

[4] 김유정, 조수선, “사이버 커뮤니티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연구- 여성사이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3호, pp.5-38, 2001.

[5] 문화일보, “‘아는 사람 많지만 말할 사람이 없다. ‘페이스북 친구는 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줄고”, 2011.10.17.

[6] 민가영,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7] 성정현, 홍석준, *인터넷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이혼문화와 사회복지*, 집문당, 2009.

[8] 윤병섭, 이홍재, “사이버 공동체내에서의 바람직

한 인간관계 형성 전략”, 한국인간관계학보, 제10권, 제1호, pp.23-41, 2005.

[9] 장현정, *여성의 재혼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미의 구성과정 : 전남지역 중소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0] 최정숙,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11] 통계청, 2011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2012.4. 19.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년도 사실혼해소 상담 통계*, 2010.

[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실혼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2010.

[14]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2011.

[15]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혼인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16] 宮田加久子. *きずなをつなぐメディア-ネット時代の社會關係資本*, 2010, 김상미 옮김, *사회관계 자본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17] A. Giddens,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1992,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2003.

[18] B. C. Beins, *Research methods: A Tool for life*, Pearson Educations, Ins, 2009.

[19] C. Ahrons, *The good divorce*, NY: HarperCollins, 1995.

[20] D. A. Madden-Derdich, S. A. Leonard & F. S. Christopher, “Boundary ambiguity and coparental conflict after divorce: An empirical test of a family systems model of the divorce proces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1, pp.588-598, 1999.

[21] E. M. Hetherington and J. Kelly, *For better or For worse*, NY: Norton, 2002.

[22] G. Binstock and A. Thornton, “Separations,

reconciliations, and living apart in cohabiting and marital unions," J. of Marriage and Family, Vol.65, pp.432-443, 2003.

[23] G. C. Kitson, "Marital discord and marital separation: A country survey," J. of Marriage and Family, Vol.47, pp.693-700, 1985.

[24] G. C. Kitson and J. K. Langlie, "Couples who file for divorce but change their minds,"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Vol.54, pp.469-489, 1984.

[25] H. Wineberg and J. McCathy, "Separation and reconciliation in American marriages," J. of Divorce & Remarriage, Vol.25, pp.75-86, 1993.

[26] H. Wineberg, "Marital reconcili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uples are successful?," J.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pp.80-88, 1994

[27] K. Adamsons and K. Pasley, "Coparenting following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In M. A. Fine & J. H. Harvey(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241-262), NJ: Lawrence Erlbaum, 2006.

[28] M. Masuda, "Perspective on premarital postdissolution relationships: Account-making of friendships between former romantic partners," In M. A. Fine & J. H. Harvey(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113-132), NJ: Lawrence Erlbaum, 2006.

[29] R. A. Thompson and P. R. Amato, *The postdivorce family: children, parenting, and society*, CA: Sage, 1999.

[30] S. A. Anderson and R. M. Sabatelli, *Family Interaction*, MA: Allyn and Bacon.1999.

[31] T. D. Afifi and K. Hamrick, "Communication processes that promote risk and resiliency in postdivorce families," In M. A. Fine & J. H. Harvey(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435-456), NJ: Lawrence Erlbaum, 2006.

[32] T. Arendell, *Mothers and Divorc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lemma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33] Ulich Beck and Elizabeth Beck-Gernsheim,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1990,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옮김,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서울: 새물결, 2002.

[34] <http://bbs.moneta.co.kr>

[35] <http://cafe.daum.net>

[36] <http://www.82cook.com>

저 자 소 개

임 춘 희(Choon-Hee Lim)

정희원



- 198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가족관계, 건강가족